

“고맙다 장맛비”... 광주·전남 가뭄 해갈

2주간 광주 145·전남 130mm...저수율 41%로 평년비 68%

무더위에 피서객 조난·식중독·80대 열사병 등 사고 잇따라

장맛비로 광주·전남 모든 지역의 가뭄이 해소됐지만, 폭우와 폭염을 오가는 ‘극과 극’ 날씨속에 물놀이 조난, 폭염 질환, 집단 식중독 등 ‘여름철 단골 사고’가 잇따랐다. 이번 주에도 30도가 넘는 폭염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이 예보돼 있어 지역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뭄 사실상 해갈...전남지역 저수율도 41%까지 회복=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가뭄피해가 심각했던 전남지역은 올 들어 1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평균 336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6%(827mm), 평년대비 52.8%(636mm) 수준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는 평균 144.9mm를, 전남은 130mm를 기록했다.

장맛비 덕분에 극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던 전남지역의 저수율도 41.3%까지 상승, 전년대비 77%, 평년대비 68% 수준까지 회복했다.

현재 무안과 신안지역 내 일부 간척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지역의 가뭄이 해갈됐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한쪽은 폭염·한쪽은 폭우 ‘극과 극’=전국적으로는 16일 충청도 지역에는 300mm에 가까운 장맛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반면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 관측 이래 7월 강수량으로는 최대인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청지역은 집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전남부터 290mm가 넘는 비가 내린 청주에서는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 범람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반면 부산, 대구, 제주도, 광주,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피서지마다 인파가 넘쳐났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전남에서는 완도 신지 명사십리 등 주요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주 우치공원, 여수 디오션리조트 등 물놀이장에도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물놀이·식중독·온열질환 등 여름철 단골 사고도 ‘빈번’=지난 15일 오후 2시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김모(42)씨가 급몰살에 휩쓸려 계속 한 가운데 있던 바위에 고립됐다. 현장에 파

견 나와 있던 119구조대원이 김씨를 발견해 밧줄을 던져 안전하게 구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15분께 완도군 금일읍에서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발일을 하던 김모(80)할머니가 쓰러졌다.

의식없이 119구조대 헬기를 타고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김 할머니는 상태가 호전되자, 아들이 있는 인천으로 옮겨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여수에서는 여름철 대표 질환인 단체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대구에서 부부동반모임으로 여수를 찾은 관광객 8명은 15일 오후 6시께 화양면에

있는 한 횡집에서 모동회를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복통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다음날 귀가했다.

김지용 정연한병원장은 “일사병과 열사병, 냉방병, 그리고 여름철 불결한 위생관리로 인한 식중독 등은 여름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이라면서 “특히 높은 기온에 노출돼 이상이 느껴질 경우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물놀이 천국으로 오세요”

16일 광주시 북구 용두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땀 휴장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쾌지수 ‘높음’인데 열지수는 ‘보통’?

측정 지표 같은데도 수치 달라 혼선...기상청 등급기준 수정 검토

기상청이 같은 기온·습도로 측정하는 불쾌지수와 열지수가 달라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불쾌지수는 광주 85를 최고로, 목포 80, 여수·순천 81 등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이 80을 넘기며 ‘매우 높음’을 기록했다.

반면 열지수는 광주가 41로 ‘높음’으로 나타났고 목포 33, 여수 35, 순천 35 등을

기록했다. 흑산도(25)를 제외한 지역에서 30~35를 유지하며 ‘보통’에 들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경우 불쾌지수는 ‘매우 높음’인데, 열지수는 ‘높음’ 또는 ‘보통’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불쾌지수와 열지수의 측정 지표차이 때문이다.

불쾌지수는 기온과 습도, 바람 등 크게 3대 요인을 통해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표현한 것으로, 온습도지수(THI)라고도 하며 크게 4단계로 나뉜다.

쾌적한 환경일 때 낮음(68 미만)으로 표현하고 보통(68~75 미만) 단계부터 불쾌감을 느끼며 높음(75~80 미만)은 두 명 중 한 명이 느끼고, 매우높음(80 이상)은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다.

이에 비해 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등 2대 요인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 중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 미국 기상청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만

들었다. 열지수는 위험(66 이상), 매우 높음(54~66 미만), 높음(41~54 미만), 보통(31~41 미만), 낮음(32 미만)으로 나뉜다.

이처럼 불쾌지수와 열지수는 수치를 산출하는 방정식이 다를 뿐 결과적으로 서로 유사한 성격이지만, 같은 날씨에도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서로 편차가 큰 단계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불쾌지수는 현황을 잘 반영하는 반면 열지수는 미국 지수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다보니 단계 구분이 현실적 인식과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9월 이후 열지수 등급 구분 기준을 손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0:10
해질 13:07
해질 05:31
달질 19:46

더위 식하는 소나기

구름이 많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가금호리고비	24/32	보성	구름많음	24/31
목포	구름많음	25/30	순천	구름많음	25/33
여수	구름많음	25/30	영광	구름많음	25/31
나주	구름많음	25/32	진도	구름많음	25/30
완도	구름많음	25/31	전주	구름많음	25/30
구례	구름많음	24/32	군산	구름많음	25/30
강진	구름많음	24/30	남원	구름많음	24/30
해남	구름많음	25/31	흑산도	구름많음	22/27
장성	가금호리고비	24/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알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알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서부	면바다(동)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24		07:36	
		13:02		20:18	
여수		08:43		02:14	
		21:02		15:09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24 13:02	07:36 20:18
여수	08:43 21:02	02:14 15:09

◇주간 날씨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33	25/33	25/32	25/33	25/33	25/33	25/33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피부질환	높음

치안구역 결정에 주민 의견 반영

광주·전남경찰청 탄력순찰제 운영...9월부터 전국 확대

광주·전남경찰청이 순찰구역 결정에 주민 요청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순찰방식을 도입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주민들로부터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아 순찰력을 집중하는 ‘탄력 순찰’ 방식을 운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관할구역 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공공기관·아파트 게시판, 학교 등에 지역 상세지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 장소와 시간대를 스티커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주민자치조직과도 접촉해 주민들이 실제로 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장소를 수집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의 ‘여성 불안신고’ 페이지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도 지도를 게시해 주민 의견을 모은다.

경찰은 17일부터 8월31일까지 서울·대구·충남·제주지역 15개 경찰서에서 제도를 시범 운용한 뒤 보완을 거쳐 9월부터 광주와 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전남교육청 4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가동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제4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50명을 위촉한 뒤 위원역량 강화 연수를 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달 시·군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2명씩 선출됐다.

2년 임기인 위원들은 도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 선 위원회 임원 선출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위원장은 윤건상 위원, 부위원장은 김묘진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연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예산제도의 이해, 전남교육 및 재정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062) 433-9191